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논문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윤 영 빈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A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dance art instructors' classes.

202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윤 영 빈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지도교수 임 지 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윤 영 빈

윤영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백 승 현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안 용 덕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지 형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문제	3
4. 연구의 제한점	3
5.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무용교육	5
2. 무용예술강사	7
2. 무용 인식도	8
III. 연구방법	10
1. 연구설계	10
2. 양적연구	11
3. 질적연구	14
IV. 연구 결과	19
1. 양적연구 결과	19
2. 질적연구 결과	45

V. 논 의52

VI.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59

 2. 제언 61

참고문헌 62

부록 66

표 목 차

표 1. 연구 절차 및 내용	10
표 2.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
표 3. 설문 조사 문항 내용	13
표 4.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15
표 5.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17
표 6.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1	19
표 7.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2	20
표 8.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3	21
표 9.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4	22
표 10.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5	23
표 11.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6	24
표 12.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7	25
표 13.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8	26
표 14.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1	27
표 15.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2	28
표 16.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3	29
표 17.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4	30
표 18.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5	31
표 19.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6	32
표 20.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7	33
표 21.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1	34
표 22.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2	35
표 23.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3	36

표 24.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4	37
표 25.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5	38
표 26.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6	39
표 27.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7	40
표 28.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1	41
표 29.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2	42
표 30.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3	43
표 31.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4	44

ABSTRACT

A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dance art instructors' classes

Young-bin Yun

Advisor: prof.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houghts and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nce education by examining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dance art instructor classes. In ad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vitalization of dance education and to present empirical data and directions for understanding middle school dance classes. To this end, this study proved the differentiation and logic of the study by conducting a vertical study of the survey composition, a quantitative study presented based on data such as class management, survey, and perception survey of previous studies,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In a quantitative study, which is a vertical study, four middle schools in Jeollanam-do, which operate school dance art instructor classes, were surveyed, and the data of the final 245 student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Meanwhile,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cross-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program of SPSS 22.0.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sults on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dance classes showed that they were more than 'yes', and in particular, they were highly aware of functional aspects such as artistic talent development, creativity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hysical expression ability. Second, most of the results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dance classes were 'yes' or higher, an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y had a high perception of the change in perception of da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art instructor's teaching method after class. Third, looking at the results of recognition of class management, 'broadcasting dance' was the most preferred physical activity, and the desired dance class time was 'one hour a week', and the desired dance class method was 'practice-oriented class operation'. Fourth, looking at the results of ways to revitalize dance education, most of them were 'normal' or higher, and in particular, there was an opinion that professional teachers who majored in life dance should be assigned rather than pure dance.

In qualitative research, which is a horizontal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fter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study to students taking classes as school dance art instructors. The questionnaire for in-depth interviews was reorganized based on the data from previous studies and selected into 8 questions, and transcribing was performed using interview techniques. Transcription work applied content, one of the inductive category analysis, and duplicate words and sentences were selected and encode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dance was recognized as a creative dance, and dance was considered a free subject for students as a class through communication and anaerobic power with friends. It was found that the dance class was recognized as a class that learns dance and correct posture, develops creative thoughts, and expresses them with the body. Second, there was an opinion that dance was recognized as a tool for self-expression and confidence was improv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t contributes to the cultural understanding and accessibility of dance classes by encountering not only Korean dances but also various foreign folk dances. Third, unlike the injection method of major subjects, dance classes were found to increase interest in dance classes by directly experiencing and expressing what was suggested. Fourth, there were opinions that a dance room was needed and that equipment and materials necessary for classes such as a full-body mirror should be arranged. In addition, more diverse classes should be conducted by showing interest in creative dance during dance classes.

Taken together,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dance art instructors' classes were positive. However, it seems that there are facilities or environmental restrictions to support this. These results can reduce the interest in dance classes and eventually affect the satisfaction of dance classe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steady research of various classes, professional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students to increase the proper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dance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움직임이다(이다은, 2019). 인간은 태어시기부터 움직이고 표현하며 모든 욕구를 신체로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움직임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움직임을 표현하는 예술은 바로 무용이다. 무용은 창조적 인간을 형성하고, 창의력 향상과 욕구 분출의 목적으로 교육적 의미가 크다(박다해, 2011). 또한, 신체적 표현활동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긍정적 정서에 도움을 주며, 미적 욕구에 대한 만족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는다. 이렇듯 무용은 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향상되게 하고, 창의적인 과정을 학생들로부터 끌어내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김세현, 2010).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정책사업의 한 부분으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이 도입되어 학교에서 2000년 국악을 중심으로 2005년도부터 무용분야가 시행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운영 총괄을 맡고 있으며 38개의 지역운영기관이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이를 예술강사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수혜 학생들은 비수혜학생 대비 문화예술 감수성, 자아존중감, 행복감, 진로성숙도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을 조금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문화예술정책백서, 2020). 그 중 무용예술강사는 각 지방의 무용예술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무용예술강사진을 조직하고 이들을 지원학교에 파견하여 교육하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무용교육을 실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김차연, 2014).

그러나 우리나라 무용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과 관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윤지영, 2008). 이처럼 무용교육은 독자적인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은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무용교육은 무용의 단순한 지식을 넘어 개인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감각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무용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무용 수업 기회를 증가시켜야 하며, 무용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감각적, 창의적, 자발적 자유의 개념 속에서 무용교육이 적절하게 도입되어야 한다(최정아, 2000).

신주경(2015)의 연구에서는 기능전달 위주의 실기수업과 주입식 수업, 중복되는 단계별 수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이선지(2010), 김소연(2016)의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및 시설의 범주에서 기자재와 장소 부족, 수업을 위한 독립적 공간부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수업 현장에 활용되어야 한다(윤지영, 2008).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적연구를 통한 무용의 운영과 전체적인 환경을 조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류종옥, 2001). 이러한 양적연구들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실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윤지영, 2008).

이에 본 연구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을 통한 인식조사를 통해 수업 실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용교육의 보다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적인 조사자료와 질적인 접근을 통해 무용교육이 예술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현 무용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무용예술강사 수업 발전에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을 달성하기 이전에 분석한 무용예술강사 수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무용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수업 가치의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무용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수업 효과의 인식은 어떠한가?
- 셋째, 무용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수업 운영의 인식은 어떠한가?
- 넷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분석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연구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문화적, 지역적 요인 등의 환경적 요인이 결과 분석에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무용수업을 실시하는 전남지역 4개 중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지역의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과 학생들의 인식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5. 용어의 정의

1) 무용예술강사

본 연구에서의 무용예술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강사를 의미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2) 무용예술교육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은 해당분야 예술전문성과 학교의 교육과정별 커리큘럼을 토대로 학교 담당교사와의 협력하에 예술강사가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이 연구에서는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을 무용예술교육으로 정의하였다(김수영, 2021).

II. 이론적 배경

1. 무용교육

1) 무용교육의 의미

무용은 신체 움직임을 통한 표현예술이다. 무용교육이란 움직임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심신의 안정과 육성을 도모하는 신체 움직임에 대한 생생한 교육이다(이다은, 2019). 무용을 통한 움직임의 의사소통은 표현력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한다. 무용의 움직임 효과는 신체 운동과 더불어 창조적인 활동으로써 교육적 가치나 역할이 크다. 이에 따라 표현의 도구로 신체를 사용하는 무용교육은 매우 개성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지경민, 2011).

무용교육은 인간이 지닌 활동욕구와 표현욕구를 충족시켜 생활과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더불어 신체 미학과 심리적 건강함을 추구한다. 또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육성시키는 특성을 가지며 전인교육의 수단으로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김숙정, 2005).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용은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닌 인간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형화된 동작으로써의 무용이나 춤의 장르, 유래만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예술교육으로써 무용교육은 체육의 표현활동과 달리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혹은 신체와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계발에 초점을 맞춘다(박유진, 2018). 현재는 공교육의 활성화로 인해 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2) 무용교육의 필요성

무용교육은 테크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모두를 요구한다

(Brinson, 1991). 무용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간이 지닌 활동욕구와 표현욕구를 충족시켜 만족스럽고 풍부한 생활을 도모한다. 또한 창의적인 표현으로 신체활동을 통해 학습하고 경험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이는 정서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다해, 2011). 무용은 신체가 표현의 도구로써 매우 독특하며 다른 예술과 달리 인간 자체가 무용의 재료가 되어 표현하기 위해 지성과 감성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무용은 지적 활동과 창조적 표현의 활동이고 신체 운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실현의 표현교육이라 볼 수 있다(김화숙, 1995).

이러한 무용은 성장 과도기인 중학교 학생들의 감성을 풍부하게하고,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삶의 풍요에 그 필요성을 갖게 된다(이다운, 2019). 이와 같이 무용교육은 총체적인 인간의 형성과 조화로운 인간형성에 막중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공교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 신체적 가치

무용은 신체움직임을 통한 표현예술이다. 원초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체단련의 기능학습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 풍부한 표현으로 조화롭고 건강한 신체발육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힘을 터득하여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알게 한다(김차연, 2014). 따라서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교육으로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움직임을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낳게 한다(이현미, 1998).

나. 정신적 가치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의 방향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정서적 사고는 장기간의 영향을 통해 축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영향은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소윤경, 2012). 청소년기는 대부분

욕구의 좌절에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다양한 욕구가 분출된다. 무용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정서적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용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만족뿐만이 아닌 무용이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설득력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된다(이희선, 1994).

다. 사회적 가치

무용은 시대적 사회의 산물로 세계의 문화와 시대를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각과 느낌을 표출하고 폭넓은 정서적 경험을 이루어준다. 무용은 다양한 움직임의 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므로 개인적인 표현활동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여러 움직임이 하나의 표현활동으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조화를 체험하고, 동료애 등 집단 간의 협동 및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이 길러진다(김차연, 2014).

2. 무용예술강사

1) 무용예술강사의 개념

학교에서 무용수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체육교과 내 표현영역의 무용수업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무용수업이다(홍애령, 이소미, 2018). 무용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체육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무용'단위로 존재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신체활동 가치로서 '표현활동'이라는 단위로 개편되었다(교육부, 2015).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지원하여 두 부처 간 협력 체제를 이루어 시행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따라 학교에 무용예술강사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영, 2021).

전문 인력으로 선발된 예술강사는 배치에 따라 주1~2회 학교에 방문한다. 학교에 파견된 예술강사는 담당 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고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무용예술강사는 무용예술교육을 위해 개발된 수업지도안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무용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실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김민희, 2012). 이처럼 무용예술강사는 학교무용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교육함으로써 현 무용예술교육을 보완한다.

2) 무용예술강사의 필요성

무용예술강사제는 학교 규모별, 교육과정별, 차등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재고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예술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학교의 교육을 지원한다(박다해, 2011). 또한 학생평가를 강사에게 공유하여 강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3. 무용 인식도

1) 무용 인식도의 개념

무용 인식도의 개념은 쾌적한 리듬 운동으로 그것은 춤추어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댄스라는 명칭과 밀착되어 있다(조영둘, 1994). 서양의 댄스는 신체의 율동적인 움직임으로 쾌적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무용인식의 개념으로 본다(박주선, 2006).

인식이란 대상을 알고 있는 수준을 말한다. 즉, 인식한다는 것은 특정 대상을 경험을 통해 하나의 주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조은희, 2016). 따라서 인식할 때는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인식 수준은 시대 상황이나 사회의 변화,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인식 수준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고 형성된다.

이에 무용 인식은 무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 및 이미지를 말한다. 무용 개념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용에 대한 구조, 기능, 관계의 이해와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있고 인식하는 것이다(김지수, 2008). 즉, 관심을 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집중되며 인식하게 된다(김미은, 2012). 무용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통해 무용의 형태를 알게되고, 그 의미를 찾게되어 무용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새기게 되는 것이다(김주연, 2006).

2) 무용 인식 결정요인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올바른 가치의 확립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효과적으로 청소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올바른 무용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한다(이지영, 2009).

또한 우리나라 사회 속의 유교적 사고방식은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의 가치 인식 등의 변화와 자리잡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개선을 통해 청소년기의 교육은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무용 인식의 결정요인은 무용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조성과 더불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어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 가는 과정의 청소년기에 어떠한 행동, 경험을 교육받고 추구하느냐에 따라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무용 인식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김미은, 2012)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단계와 절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및 내용

연구 단계	연구절차	세부내용
1단계 (2021.03~ 2021.05)	연구 문제 탐색 및 연구 계획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무용예술강사 관련 문헌수집 · 선행연구 검토
2단계 (2021.06~ 2021.07)	양적 · 질적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심층면담 및 전사 작업
3단계 (2021.08~)	수집 자료 분석 및 연구 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코딩 · 결과 분석 및 해석 · 연구 결과 작성

양적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업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Schempp, 1987).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거쳐 학교수업 현장에서의 무용교육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위해 두 방법을 혼합한 통합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윤지영, 2008).

2. 양적연구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무용교육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을 운영하는 전라남도 지역의 중학교 중에서 4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52명의 남녀 학생들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료검토 과정에서 응답이 누락 되거나 이중으로 응답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7명의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자료처리분석은 불성실한 응답자들을 제외한 245명의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38명이고 여학생은 107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46명, 2학년 173명, 그리고 3학년 26명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에 대한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45)

구 분		사 례 수	%
성별	남학생	138	56.3
	여학생	107	43.7
학년	1학년	46	18.8
	2학년	173	70.6
	3학년	26	10.6

2) 조사도구

가. 설문조사

본 연구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및 활성화 방안 설문지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서인숙(2005), 류종윤(2005), 이진희(2011)의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26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5점 Likert형 척도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학년으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용 수업 가치 인식 정도에 관한 문항은 총 8문항이다. 무용 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움직임의 즐거움과 감정표현 등으로 총 7문항,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희망하는 신체활동과, 무용 수업 시수 등의 총 7문항, 무용 수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설문 조사 문항 내용

구분	문항내용	문항번호
학생 개인 특성	성별, 학년	1-2
무용 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	무용 인식	3
	무용 수업 중요도	4
	무용 예술강사 수업 필요도	5
	무용 수업 중요도에 따른 정규과목 편성 필요도	6
	예술적 재능개발	7
	창의성 개발	8
	신체표현 능력	9
	배려심과 협동심	10
무용 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무용 움직임의 즐거움	11
	감정표현	12
	자세 교정	13
	긴장 완화	14
	수업 후 인식 변화	15
	수업 내용 만족도	16
	예술강사 수업 방식 만족도	17
수업운영에 대한 인식	체육교과로써의 적합성	18
	희망 신체활동	19
	현재 무용수업 시수	20
	희망 무용수업 시수	21
	현재 무용수업 이론 및 실기 비중	22
	희망 무용수업 이론 및 실기 비중	23
	무용수업 지속적 유지 필요 여부	24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생활무용 예술성 인지도 증진	25
	통합 수업	26
	맞춤 수업	27
	전문교사 배치 필요도	28

3) 조사절차

학교예술강사 무용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학기 종강 직전 전라남도 4개의 중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응답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설문지는 끝나는 대로 바로 회수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발적 사실을 인지시킨 후 설문지에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2.0(Ver)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3. 질적연구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된 직후 무용수업 선호도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방법은 소수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진실성(Credibility), 신뢰성(Trustworthiness)이 확보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특정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자료로 취합하는데 진실성의 측면이 강조된다(Patton, 1990).

표 4.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성별	학년	무용수업선호도
A	여자	2학년	상
B	여자	2학년	중
C	여자	2학년	하
D	여자	2학년	중
E	여자	1학년	상
F	남자	2학년	하
G	여자	2학년	상
H	남자	3학년	중
I	여자	3학년	상

가. 참여자 A

리더십이 강해 반에서 체육부장을 맡고 있으며, 주로 신체를 직접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해 수업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활동하는 협력적인 학생이다.

나. 참여자 B

처음 걸음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라고 느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며 밝은 성격으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주위 깊게 들으며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다.

다. 참여자 C

체구가 작고 소심한 성격으로, 신체 움직임을 낮설어하는 성격이라 개인이 혼자 움직이는 창작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는 활동을 더 좋아한다. 겁이 많아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맡은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다.

라. 참여자 D

거침없는 표현력과 활동력이 높고, 체육활동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다. 운동 능력은 매우 우수하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무용 수업에도 적극적인 학생이다.

마. 참여자 E

무용 시간을 좋아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무용을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 나름대로 신체를 잘 활용하며 어려운 동작들을 잘 표현한다. 전반적으로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리더십이 강하고 조 활동을 할 때 어려운 동작들을 친구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연습을 주도한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지만 특히 라인댄스와 방송댄스를 선호하는 편이다.

바. 참여자 F

무용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나 긍정적이고 열심히 따라하는 학생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신체를 잘 사용한다. 무용을 할 때는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팔, 다리가 길어 라인을 잘 사용하며 작품 순서 습득이 빠르다.

사. 참여자 G

활발한 성격으로 교우들과 사이가 좋으며 예능적인 부분이 기대되는 학생이다. 방송댄스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아는 음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춤을 춘다. 무용은 소극적으로 대하는 편이나 발레나 테크닉적인 동작들을 구사할 때 수월하게 수행하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

아. 참여자 H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평범한 학생이다. 운동신경이 좋으나 무용에 대한 관심이 적은편이다. 반에서 청일점으로 여학우들과 사이가 매우 좋으며 예술강사의 지도에 순응도가 수업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자. 참여자 I

모든 무용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실한 학생이다. 신체활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무용 수업을 제일 좋아한다. 어려운 동작이 헛갈려 하는 동작들을 자주 질문하며 동작을 성실히 습득한다. 예술강사 수업 중 뮤지컬 음악을 활용한 창작 수업을 좋아하며 상상력이 풍부하며 창작 수업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조별 활동을 할 때 리더십이 돋보인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무용 인식과 관련된 심층면담 질문지는 김윤희(2001), 조효주(2007)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는 학교무용예술강사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의견에 관한 내용이며,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무용수업의 가치	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용수업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용수업의 효과	무용을 배우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무용수업을 받기 전 무용에 대한 인식과 받고난 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무용수업의 운영	학교에서 시행되는 무용수업이 본인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무용 수업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무용교육의 활성화	갖추어졌으면 하는 무용시설의 환경이나 물품은 무엇입니까?
	무용 수업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가. 문헌조사

문헌조사 과정은 학교무용예술강사와 관련된 논문, 학술지, 보고서, 기사 등의 다양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나. 심층면담

본 연구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도출하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양적연구에서의 인식조사 결과를 더욱 확실히 입증할 수 있으며, 인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의 근원과 그 본질을 체계적인 것으로부터 정리하고,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의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심층면담이 실시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 작업(Transcribing)을 하였다. 이 과정은 수집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 파일에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단순히 자료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의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고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분석적 의미를 갖는다(김영천, 2006).

다음단계로 귀납적 범주분석의 하나인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전사 작업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면서 중복되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선별하여 부호화하였다. 부호화된 자료 속에 내재된 주제를 찾는 주제별 약호화를 실시하고 주제별로 약호화된 내용은 유사한 의미끼리 범주화시키고, 범주화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의미의 개념화 작업을 통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박찬, 2019).

IV. 연구 결과

1. 양적연구 결과

1)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에 대해 잘 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9명(3.7%), ‘그렇지 않다’ 26명(10.6%), ‘보통이다’ 106명(43.3%), ‘그렇다’ 73명(29.8%), ‘매우 그렇다’ 31명(12.7%)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에 대해 잘 안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43)과 여자 107명(3.3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027($t=1.060^*$)로 남자와 여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무용에 대해 잘 안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26), 2학년 173명(3.44), 3학년 26명(3.12)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191($F=1.669$)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1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에 대해 잘 안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3.7	-	-	-
	그렇지 않다	26	10.6	-		
	보통이다	106	43.3	-		
	그렇다	73	29.8	-		
	매우 그렇다	31	12.7	-		
성별	남자	138	3.43	1.024	.027	1.060*
	여자	107	3.30	.871		
학년	1학년	46	3.26	.976	.191	1.669
	2학년	173	3.44	.911		
	3학년	26	3.12	1.211		

*** $p<.001$, ** $p<.01$, * $p<.0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수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1.2%), ‘그렇지 않다’ 17명(6.9%), ‘보통이다’ 97명(39.6%), ‘그렇다’ 84명(34.3%), ‘매우 그렇다’ 44명(18.0%)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75)과 여자 107명(3.43)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720($t=2.761$)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46), 2학년 173명(3.65), 3학년 26명(3.62)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444($F=.814$)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2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은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	-	-
	그렇지 않다	17	6.9	-		
	보통이다	97	39.6	-		
	그렇다	84	34.3	-		
	매우 그렇다	44	18.0	-		
성별	남자	138	3.75	.888	.720	2.761
	여자	107	3.43	.891		
학년	1학년	46	3.46	.862	.444	.814
	2학년	173	3.65	.920		
	3학년	26	3.62	.852		

*** $p<.001$, ** $p<.01$, * $p<.05$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예술강사 수업이 필요하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명(0.4%), ‘그렇지 않다’ 17명(6.9%), ‘보통이다’ 83명(33.9%), ‘그렇다’ 87명(35.5%), ‘매우 그렇다’ 57명(23.3%)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예술강사 수업이 필요하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84)과 여자 107명(3.62)이 응답하였고 유의값은 .847($t=1.925$)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예술강사 수업이 필요하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59), 2학년 173명(3.80), 3학년 26명(3.65)이 응답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3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예술 강사 수업이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	-	-
	그렇지 않다	17	6.9	-		
	보통이다	83	33.9	-		
	그렇다	87	35.5	-		
	매우 그렇다	57	23.3	-		
성별	남자	138	3.84	.914	.847	1.925
	여자	107	3.62	.886		
학년	1학년	46	3.59	.884	.327	1.122
	2학년	173	3.80	.902		
	3학년	26	3.65	.977		

*** $p<.001$, ** $p<.01$, * $p<.05$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교과 정규과목 편성은 필요하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6명(2.4%), ‘그렇지 않다’ 29명(11.8%), ‘보통이다’ 117명(47.8%), ‘그렇다’ 44명(18.0%), ‘매우 그렇다’ 49명(20.0%)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교과 정규과목 편성은 필요하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54)과 여자 107명(3.25)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852($t=2.188$)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교과 정규과목 편성은 필요하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35), 2학년 173명(3.46), 3학년 26명(3.19)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402($F=.914$)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4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교과 정규과목 편성은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2.4	-	-	-
	그렇지 않다	29	11.8	-		
	보통이다	117	47.8	-		
	그렇다	44	18.0	-		
	매우 그렇다	49	20.0	-		
성별	남자	138	3.54	.975	.852	2.188
	여자	107	3.25	1.047		
학년	1학년	46	3.35	.900	.402	.914
	2학년	173	3.46	1.070		
	3학년	26	3.19	.801		

*** $p<.001$, ** $p<.01$, * $p<.05$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수업은 예술적 재능개발에 영향을 준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0.8%), ‘그렇지 않다’ 4명(1.6%), ‘보통이다’ 49명(20.0%), ‘그렇다’ 116명(47.3%), ‘매우 그렇다’ 74명(30.2%)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은 예술적 재능개발에 영향이 있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4.07)과 여자 107명(4.02)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252($t=.450$)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은 예술적 재능개발에 영향이 있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89), 2학년 173명(4.06), 3학년 26명(4.19)이 응답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5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은 예술 적 재능 개발에 영향을 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		
	그렇지 않다	4	1.6	-		
	보통이다	49	20.0	-	-	-
	그렇다	116	47.3	-		
	매우 그렇다	74	30.2	-		
성별	남자	138	4.07	.737	.252	.450
	여자	107	4.02	.879		
학년	1학년	46	3.89	.875	.265	1.337
	2학년	173	4.06	.794		
	3학년	26	4.19	.694		

*** $p<.001$, ** $p<.01$, * $p<.05$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수업은 창의성 개발에 가치가 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 7명(2.9%), ‘보통이다’ 56명(22.9%), ‘그렇다’ 114명(46.5%), ‘매우 그렇다’ 68명(27.8%)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은 창의성 개발에 가치가 있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96)과 여자 107명(4.03)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930($t=-.631$)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은 창의성 개발에 가치가 있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4.13), 2학년 173명(3.95), 3학년 26명(4.04)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361($F=1.022$)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6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은 창의 성 개발에 가치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다	7	2.9	-		
	보통이다	56	22.9	-	-	-
	그렇다	114	46.5	-		
	매우 그렇다	68	27.8	-		
성별	남자	138	3.96	.796	.930	-.631
	여자	107	4.03	.783		
학년	1학년	46	4.13	.687	.361	1.022
	2학년	173	3.95	.816		
	3학년	26	4.04	.774		

*** $p<.001$, ** $p<.01$, * $p<.05$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수업을 통해 신체 표현 능력이 좋아졌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0.8%), ‘그렇지 않다’ 9명(3.7%), ‘보통이다’ 67명(27.3%), ‘그렇다’ 104명(42.4%), ‘매우 그렇다’ 63명(25.7%)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신체표현 능력이 좋아졌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96)과 여자 107명(3.79)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366($t=1.466$)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신체표현 능력이 좋아졌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63), 2학년 173명(3.93), 3학년 26명(4.04)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069($F=2.705$)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7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을 통해 신체표현 능력이 좋아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		
	그렇지 않다	9	3.7	-		
	보통이다	67	27.3	-	-	-
	그렇다	104	42.4	-		
	매우 그렇다	63	25.7	-		
성별	남자	138	3.96	.827	.366	1.466
	여자	107	3.79	.898		
학년	1학년	46	3.63	.826	.069	2.705
	2학년	173	3.93	.880		
	3학년	26	4.04	.720		

*** $p<.001$, ** $p<.01$, * $p<.05$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가치의 문항 중 ‘무용수업을 통해 동료 간 배려심과 협동심이 길러졌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 11명 (4.5%), ‘보통이다’ 78명(31.8%), ‘그렇다’ 102명(41.6%), ‘매우 그렇다’ 54명(22.0%)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동료 간 배려심과 협동심이 길러졌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90)과 여자 107명 (3.7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781($t=1.862$)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동료 간 배려심과 협동심이 길러졌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76), 2학년 173명(3.84), 3학년 26명(3.73)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743($F=.297$)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가치 8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을 통해 동료 간 배려심과 협동심이 길러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다	11	4.5	-		
	보통이다	78	31.8	-	-	-
	그렇다	102	41.6	-		
	매우 그렇다	54	22.0	-		
성별	남자	138	3.90	.865	.781	1.862
	여자	107	3.70	.767		
학년	1학년	46	3.76	.822	.743	.297
	2학년	173	3.84	.812		
	3학년	26	3.73	.962		

*** $p<.001$, ** $p<.01$, * $p<.05$

2) 무용 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효과의 문항 중 ‘무용수업을 통해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 5명(2.0%), ‘보통이다’ 52명(21.2%), ‘그렇다’ 128명(52.2%), ‘매우 그렇다’ 60명(24.5%)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꼈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4.09)과 여자 107명(3.87)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675($t=2.320$)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꼈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4.00), 2학년 173명(3.98), 3학년 26명(4.04)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934($F=.068$)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효과 1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다	5	2.0	-		
	보통이다	52	21.2	-	-	-
	그렇다	128	52.2	-		
	매우 그렇다	60	24.5	-		
성별	남자	138	4.09	.730	.675	2.320
	여자	107	3.87	.728		
학년	1학년	46	4.00	.730	.934	.068
	2학년	173	3.98	.758		
	3학년	26	4.04	.599		

*** $p<.001$, ** $p<.01$, * $p<.05$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효과의 문항 중 ‘무용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표현이 좋아졌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0.8%), ‘그렇지 않다’ 22명(9.0%), ‘보통이다’ 93명(38.0%), ‘그렇다’ 82명(33.5%), ‘매우 그렇다’ 46명(18.8%)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표현이 좋아졌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75)과 여자 107명(3.41)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809($t=2.934$)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표현이 좋아졌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48), 2학년 173명(3.61), 3학년 26명(3.77)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426($F=.855$)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효과 2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을 통해 감정표현이 좋아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	-	-
	그렇지 않다	22	9.0	-		
	보통이다	93	38.0	-		
	그렇다	82	33.5	-		
	매우 그렇다	46	18.8	-		
성별	남자	138	3.75	.895	.809	2.934
	여자	107	3.41	.921		
학년	1학년	46	3.48	.888	.426	.855
	2학년	173	3.61	.925		
	3학년	26	3.77	.951		

*** $p<.001$, ** $p<.01$, * $p<.05$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효과의 문항 중 ‘무용수업을 통해 자세가 좋아졌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명(0.4%), ‘그렇지 않다’ 13명(5.3%), ‘보통이다’ 72명(29.4%), ‘그렇다’ 106명(43.3%), ‘매우 그렇다’ 53명(21.6%)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자세가 좋아졌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86)과 여자 107명(3.73)이 응답하였고 유의값은 .363($t=1.218$)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자세가 좋아졌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54), 2학년 173명(3.85), 3학년 26명(3.96)이 응답하였고 유의값은 .057($F=2.897$)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효과 3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을 통해 자세가 좋아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	-	-
	그렇지 않다	13	5.3	-		
	보통이다	72	29.4	-		
	그렇다	106	43.3	-		
	매우 그렇다	53	21.6	-		
성별	남자	138	3.86	.821	.363	1.218
	여자	107	3.73	.886		
학년	1학년	46	3.54	.751	.057	2.897
	2학년	173	3.85	.863		
	3학년	26	3.96	.871		

*** $p<.001$, ** $p<.01$, * $p<.05$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효과의 문항 중 ‘무용수업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1.2%), ‘그렇지 않다’ 27명(11.0%), ‘보통이다’ 104명(42.4%), ‘그렇다’ 69명(28.2%), ‘매우 그렇다’ 42명(17.1%)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었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59)과 여자 107명(3.36)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348($t=1.839$)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었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30), 2학년 173명(3.54), 3학년 26명(3.46)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309($F=1.181$)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효과 4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	-	-
	그렇지 않다	27	11.0	-		
	보통이다	104	42.4	-		
	그렇다	69	28.2	-		
	매우 그렇다	42	17.1	-		
성별	남자	138	3.59	.949	.348	1.839
	여자	107	3.36	.925		
학년	1학년	46	3.30	.916	.309	1.181
	2학년	173	3.54	.924		
	3학년	26	3.46	1.104		

*** $p<.001$, ** $p<.01$, * $p<.05$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효과의 문항 중 ‘무용수업을 받은 후 무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명(0.4%), ‘그렇지 않다’ 7명(2.9%), ‘보통이다’ 58명(23.7%), ‘그렇다’ 101명(41.2%), ‘매우 그렇다’ 78명(31.8%)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을 받은 후 무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4.03)과 여자 107명(3.99)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681($t=.353$)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을 받은 후 무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4.07), 2학년 173명(4.02), 3학년 26명(3.85)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544($F=.609$)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8.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효과 5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을 통해 무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	-	-
	그렇지 않다	7	2.9	-		
	보통이다	58	23.7	-		
	그렇다	101	41.2	-		
	매우 그렇다	78	31.8	-		
성별	남자	138	4.03	.837	.681	.353
	여자	107	3.99	.852		
학년	1학년	46	4.07	.712	.544	.609
	2학년	173	4.02	.856		
	3학년	26	3.85	.967		

*** $p<.001$, ** $p<.01$, * $p<.05$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효과의 문항 중 ‘무용수업에 대해 만족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명(0.4%), ‘그렇지 않다’ 2명(0.8%), ‘보통이다’ 34명(13.9%), ‘그렇다’ 94명(38.4%), ‘매우 그렇다’ 114명(46.5%)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에 대해 만족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4.33)과 여자 107명(4.26)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570($t=.652$)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에 대해 만족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4.46), 2학년 173명(4.27), 3학년 26명(4.19)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264($F=1.338$)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효과 6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	-	-
	그렇지 않다	2	0.8	-		
	보통이다	34	13.9	-		
	그렇다	94	38.4	-		
	매우 그렇다	114	46.5	-		
성별	남자	138	4.33	.785	.570	.652
	여자	107	4.26	.744		
학년	1학년	46	4.46	.751	.264	1.338
	2학년	173	4.27	.756		
	3학년	26	4.19	.849		

*** $p<.001$, ** $p<.01$, * $p<.05$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효과의 문항 중 ‘무용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 23명(9.4%), ‘그렇다’ 87명(35.5%), ‘매우 그렇다’ 135명(55.1%)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4.46)과 여자 107명(4.46)이 응답하였고 유의값은 .982($t=-.017$)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4.52), 2학년 173명(4.49), 3학년 26명(4.12)이 응답하였고 유의값은 .019($F=4.016^*$)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0.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업 효과 7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지도자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이다	23	9.4	-		
	그렇다	87	35.5	-		
	매우 그렇다	135	55.1	-		
성별	남자	138	4.46	.663	.982	-.017
	여자	107	4.46	.663		
학년	1학년	46	4.52	.623	.019	4.016*
	2학년	173	4.49	.644		
	3학년	26	4.12	.766		

*** $p<.001$, ** $p<.01$, * $p<.05$

3) 무용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운영의 문항 중 ‘무용수업은 체육교과 내용으로 적합하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0.8%), ‘그렇지 않다’ 14명(5.7%), ‘보통이다’ 74명(30.2%), ‘그렇다’ 96명(39.2%), ‘매우 그렇다’ 59명(24.1%)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은 체육교과 내용으로 적합하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82)과 여자 107명(3.78)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792($t=.373$)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은 체육교과 내용으로 적합하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87), 2학년 173명(3.79), 3학년 26명(3.78)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842($F=.173$)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 1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은 체육 교과내용 으로적합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	-	-
	그렇지 않다	14	5.7	-		
	보통이다	74	30.2	-		
	그렇다	96	39.2	-		
	매우 그렇다	59	24.1	-		
성별	남자	138	3.82	.898	.792	.373
	여자	107	3.78	.904		
학년	1학년	46	3.87	.806	.842	.172
	2학년	173	3.79	.918		
	3학년	26	3.78	.951		

*** $p<.001$, ** $p<.01$, * $p<.05$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운영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가장 희망하는 신체활동’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한국무용 12명(4.9%), 현대무용 41명(16.7%), 발레 16명(6.5%), 민속무용 7명(2.9%), 방송댄스 42명(17.1%), 기타 20명(8.2%)과 여자 한국무용 8명(3.3%), 현대무용 23명(9.4%), 발레 15명(6.1%), 민속무용 3명(1.2%), 방송댄스 49명(20.0%), 기타 9명(3.7%)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135(x^2=8.418, df=5)$ 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가장 희망하는 신체활동’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한국무용 5명(2.0%), 현대무용 9명(3.7%), 발레 6명(2.4%), 민속무용 2명(0.8%), 방송댄스 17명(6.9%), 기타 7명(2.9%), 2학년 한국무용 14명(5.7%), 현대무용 47명(19.2%), 발레 24명(9.8%), 민속무용 7명(2.9%), 방송댄스 63명(25.7%), 기타 18명(7.3%), 3학년 한국무용 1명(0.4%), 현대무용 8명(3.3%), 발레 1명(0.4%), 민속무용 1명(0.4%), 방송댄스 11명(4.5%), 기타 4명(1.6%)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884(x^2=5.099, df=10)$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 2의 인식 차이

가장 희망하는 신체활동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민속무용	방송댄스	기타	x ² (df)	p
성별	남자	12 (4.9%)	41 (16.7%)	16 (6.5%)	7 (2.9%)	42 (17.1%)	20 (8.2%)	8.418 (5)	.135
	여자	8 (3.3%)	23 (9.4%)	15 (6.1%)	3 (1.2%)	49 (20.0%)	9 (3.7%)		
학년	1학년	5 (2.0%)	9 (3.7%)	6 (2.4%)	2 (0.8%)	17 (6.9%)	7 (2.9%)	5.099 (10)	.884
	2학년	14 (5.7%)	47 (19.2%)	24 (9.8%)	7 (2.9%)	63 (25.7%)	18 (7.3%)		
	3학년	1 (0.4%)	8 (3.3%)	1 (0.4%)	1 (0.4%)	11 (4.5%)	4 (1.6%)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운영의 문항 중 ‘무용수업 시수에 대해 만족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1.2%), ‘그렇지 않다’ 18명(7.3%), ‘보통이다’ 80명(32.7%), ‘그렇다’ 94명(38.4%), ‘매우 그렇다’ 50명(20.4%)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 시수에 대해 만족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75)과 여자 107명(3.62)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694($t=1.157$)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 시수에 대해 만족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87), 2학년 173명(3.68), 3학년 26명(3.5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235($F=1.456$)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 3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시수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	-	-
	그렇지 않다	18	7.3	-		
	보통이다	80	32.7	-		
	그렇다	94	38.4	-		
	매우 그렇다	50	20.4	-		
성별	남자	138	3.75	.934	.694	1.157
	여자	107	3.62	.897		
학년	1학년	46	3.87	.778	.235	1.456
	2학년	173	3.68	.933		
	3학년	26	3.50	1.030		

*** $p<.001$, ** $p<.01$, * $p<.05$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운영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희망하는 무용수업 시수’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주 1시간 71명(29.0%), 주 2시간 53명(21.6%), 주 3시간 9명(3.7%), 주 4시간 이상 5명(2.0%)과 여자 주 1시간 51명(20.8%), 주 2시간 43명(17.6%), 주 3시간 8명(3.3%), 주 4시간 이상 5명(2.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927($\chi^2=.464$, $df=3$)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희망하는 무용수업 시수’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주 1시간 23명(9.4%), 주 2시간 19명(7.8%), 주 3시간 2명(0.8%), 주 4시간 이상 2명(0.8%), 2학년 주 1시간 86명(35.1%), 주 2시간 67명(27.3%), 주 3시간 14명(5.7%), 주 4시간 이상 6명(2.4%), 3학년 주 1시간 13명(5.3%), 주 2시간 10명(4.1%), 주 3시간 1명(0.4%), 주 4시간 이상 2명(0.8%)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900($\chi^2=2.199$, $df=6$)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 4의 인식 차이

희망하는 무용수업 시수		주 1시간	주 2시간	주 3시간	주 4시간 이상	χ^2 (df)	p
성별	남자	71 (29.0%)	53 (21.6%)	9 (3.7%)	5 (2.0%)	.464 (3)	.927
	여자	51 (20.8%)	43 (17.6%)	8 (3.3%)	5 (2.0%)		
학년	1학년	23 (9.4%)	19 (7.8%)	2 (0.8%)	2 (0.8%)	2.199 (6)	.900
	2학년	86 (35.1%)	67 (27.3%)	14 (5.7%)	6 (2.4%)		
	3학년	13 (5.3%)	10 (4.1%)	1 (0.4%)	2 (0.8%)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운영의 문항 중 ‘무용수업 이론과 실기 시간 비중에 대해 만족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 7명(2.9%), ‘보통이다’ 77명(31.4%), ‘그렇다’ 106명(43.3%), ‘매우 그렇다’ 55명(22.4%)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 이론과 실기시간 비중에 대해 만족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88)과 여자 107명(3.82)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798($t=.529$)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 이론과 실기시간 비중에 대해 만족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4.02), 2학년 173명(3.84), 3학년 26명(3.65)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153($F=1.890$)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 5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이론과 실기시간 비중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그렇지 않다	7	2.9	-		
	보통이다	77	31.4	-	-	-
	그렇다	106	43.3	-		
	매우 그렇다	55	22.4	-		
성별	남자	138	3.88	.815	.798	.529
	여자	107	3.82	.775		
학년	1학년	46	4.02	.715	.153	1.890
	2학년	173	3.84	.790		
	3학년	26	3.65	.936		

*** $p<.001$, ** $p<.01$, * $p<.05$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운영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희망하는 무용수업의 비중’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실기만 운영 32명(13.1%), 실기를 주로 운영 65명(26.5%), 이론과 실기를 반반으로 운영 34명(13.9%), 이론을 주로 운영 1명(0.4%), 이론만 운영 6명(2.4%)과 여자 실기만 운영 21명(8.6%), 실기를 주로 운영 46명(18.8%), 이론과 실기를 반반으로 운영 25명(10.2%), 이론을 주로 운영 7명(2.9%), 이론만 운영 8명(3.3%)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095($\chi^2=7.898$, $df=4$)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희망하는 무용수업의 비중’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실기만 운영 8명(3.3%), 실기를 주로 운영 19명(7.8%), 이론과 실기를 반반으로 운영 16명(6.5%), 이론을 주로 운영 2명(0.8%), 이론만 운영 1명(0.4%), 2학년 실기만 운영 32명(13.1%), 실기를 주로 운영 82명(33.5%), 이론과 실기를 반반으로 운영 40명(16.3%), 이론을 주로 운영 6명(2.4%), 이론만 운영 13명(5.3%), 3학년 실기만 운영 13명(5.3%), 실기를 주로 운영 10명(4.1%), 이론과 실기를 반반으로 운영 3명(1.2%), 이론을 주로 운영 0명(0.0%), 이론만 운영 0명(0.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011($\chi^2=19.903^*$, $df=8$)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 6의 인식 차이

희망하는 무용수업의 비중		실기만 운영	실기를 주로 운영	이론과 실기를 반반으로 운영	이론을 주로 운영	이론만 운영	x2 (df)	p
성별	남자	32 (13.1%)	65 (26.5%)	34 (13.9%)	1 (0.4%)	6 (2.4%)	7.898 (4)	.095
	여자	21 (8.6%)	46 (18.8%)	25 (10.2%)	7 (2.9%)	8 (3.3%)		
학년	1학년	8 (3.3%)	19 (7.8%)	16 (6.5%)	2 (0.8%)	1 (0.4%)	19.903* (8)	.011
	2학년	32 (13.1%)	82 (33.5%)	40 (16.3%)	6 (2.4%)	13 (5.3%)		
	3학년	13 (5.3%)	10 (4.1%)	3 (1.2%)	0 (0.0%)	0 (0.0%)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수업 운영의 문항 중 ‘다음에도 예술강사 선생님을 통한 무용수업을 받고 싶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0.8%), ‘그렇지 않다’ 10명(4.1%), ‘보통이다’ 55명(22.4%), ‘그렇다’ 97명(39.6%), ‘매우 그렇다’ 81명(33.1%)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다음에도 예술강사 선생님을 통한 무용수업을 받고 싶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4.02)과 여자 107명(3.97)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570($t=.433$)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다음에도 예술강사 선생님을 통한 무용수업을 받고 싶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87), 2학년 173명(4.02), 3학년 26명(4.08)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525($F=.64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7.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 7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다음에도 예술강사 선생님을 통한 무용수업 을 받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	-	-
	그렇지 않다	10	4.1	-		
	보통이다	55	22.4	-		
	그렇다	97	39.6	-		
	매우 그렇다	81	33.1	-		
성별	남자	138	4.02	.850	.570	.433
	여자	107	3.97	.946		
학년	1학년	46	3.87	.806	.525	.645
	2학년	173	4.02	.927		
	3학년	26	4.08	.796		

*** $p < .001$, ** $p < .01$, * $p < .05$

4) 무용 교육 활성화 방안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의 문항 중 ‘무용수업 활성화를 위해 순수예술 보다 생활무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명(0.4%), ‘그렇지 않다’ 7명(2.9%), ‘보통이다’ 130명(53.1%), ‘그렇다’ 78명(31.8%), ‘매우 그렇다’ 29명(11.8%)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 활성화를 위해 순수예술 보다 생활무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61)과 여자 107명(3.4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264($t=2.142$)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 활성화를 위해 순수예술 보다 생활무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20), 2학년 173명(3.61), 3학년 26명(3.5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004($F=5.60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8.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1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활성화를 위해 순수예술 보다 생활무용 이 우선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	-	-
	그렇지 않다	7	2.9	-		
	보통이다	130	53.1	-		
	그렇다	78	31.8	-		
	매우 그렇다	29	11.8	-		
성별	남자	138	3.61	.759	.264	2.142
	여자	107	3.40	.738		
학년	1학년	46	3.20	.654	.004	5.601**
	2학년	173	3.61	.775		
	3학년	26	3.50	.648		

*** $p<.001$, ** $p<.01$, * $p<.05$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의 문항 중 ‘무용수업 이론, 실기, 감상 등의 통합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명(2.0%), ‘그렇지 않다’ 15명(6.1%), ‘보통이다’ 104명(42.4%), ‘그렇다’ 82명(33.5%), ‘매우 그렇다’ 39명(15.9%)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수업 이론, 실기, 감상 등의 통합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51)과 여자 107명(3.64)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254($t=-1.089$)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수업 이론, 실기, 감상 등의 통합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59), 2학년 173명(3.61), 3학년 26명(3.23)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145($F=1.944$)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9.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2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수업 이론, 실 기, 감상 등의 통 합수업이 이루어져 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2.0	-		
	그렇지 않다	15	6.1	-		
	보통이다	104	42.4	-	-	-
	그렇다	82	33.5	-		
	매우 그렇다	39	15.9	-		
성별	남자	138	3.51	.946	.254	-1.089
	여자	107	3.64	.873		
학년	1학년	46	3.59	.805	.145	1.944
	2학년	173	3.61	.874		
	3학년	26	3.23	1.275		

*** $p<.001$, ** $p<.01$, * $p<.05$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의 문항 중 ‘개인능력을 고려한 맞춤 수업으로 진행’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1.2%), ‘그렇지 않다’ 17명(6.9%), ‘보통이다’ 103명(42.0%), ‘그렇다’ 80명(32.7%), ‘매우 그렇다’ 42명(17.1%)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개인능력을 고려한 맞춤 수업으로 진행’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60)과 여자 107명(3.54)이 응답하였고 유의값은 .821($t=.514$)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개인능력을 고려한 맞춤 수업으로 진행’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41), 2학년 173명(3.61), 3학년 26명(3.65)이 응답하였고 유의값은 .384($F=.962$)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0.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3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개인능력을 고려한 맞춤 수업으로 진행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	-	-
	그렇지 않다	17	6.9	-		
	보통이다	103	42.0	-		
	그렇다	80	32.7	-		
	매우 그렇다	42	17.1	-		
성별	남자	138	3.60	.900	.821	.514
	여자	107	3.54	.893		
학년	1학년	46	3.41	.805	.384	.962
	2학년	173	3.61	.906		
	3학년	26	3.65	.977		

*** $p<.001$, ** $p<.01$, * $p<.05$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의 문항 중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0.8%), ‘그렇지 않다’ 10명(4.1%), ‘보통이다’ 92명(37.6%), ‘그렇다’ 94명(38.4%), ‘매우 그렇다’ 47명(19.2%)의 응답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의 문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138명(3.80)과 여자 107명(3.60)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479($t=1.825$)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의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학년 46명(3.57), 2학년 173명(3.72), 3학년 26명(3.92)이 응답하였고 유의 값은 .226($F=1.49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4의 인식 차이

		<i>N</i>	<i>M</i>	<i>SD</i>	<i>P</i>	<i>t / F</i> 값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사 가 학교에 배치되어 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	-	-
	그렇지 않다	10	4.1	-		
	보통이다	92	37.6	-		
	그렇다	94	38.4	-		
	매우 그렇다	47	19.2	-		
성별	남자	138	3.80	.821	.479	1.825
	여자	107	3.60	.878		
학년	1학년	46	3.57	.860	.226	1.495
	2학년	173	3.72	.853		
	3학년	26	3.92	.796		

*** $p<.001$, ** $p<.01$, * $p<.05$

2. 질적연구 결과

1) 무용수업의 가치

가. 신체적 표현의 도구로서의 무용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무용을 신체적 표현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용을 창의적인 춤이라고 인식하고,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인식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노래에 주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면담자 C)

자신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D)

무용은 그때 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걸 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F)

무용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H)

무용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 좀 이게 예술적이라 생각합니다. (면담자 I)

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창의력 발달 도구로서의 무용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 수업을 소통과 협력적인 자세를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창의적인 생각을 기르고 혼자서 하는 무용이 아닌 친구들과 협력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양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의견이었다.

다양한 동작들을 배우면서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협력적인 자세를 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A)

무용은 춤이랑 협동심을 배우는 시간 같아요. (면담자 B)

무용 시간은 춤도 배우지만 자세도 배우고, 애들이랑 같이 무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걸 배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면담자 E)

무용 수업은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걸그룹 그런 춤과 다르게 더 춤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는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면담자 F)

생각을 기르는,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기르고 이제 아름다운 춤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G)

춤과 창의력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용 수업에서 창작 수업을 할 때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춤을 추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면담자 H)

무용 수업은 소통, 표현 같은 걸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용은 혼자서 하는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나 선생님과 소통이 다른 수업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또한 무용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면담자 I)

2) 무용수업의 효과

가. 자기표현 도구로서의 무용

춤의 다양함을 인식하고,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용 수업을 받기 전에는 춤을 잘 춰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수업을 받고 난 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즐기며 무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하지 않은 춤? 그런거를 추니까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친구들과하고 같이 함으로써 협동심 그런 것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면담자 F)

저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작 수업 때 마다 자기 영향을 발휘하면서 자신감을 뽐뽐하기 때문에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면담자 H)

자신감? 약간 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 같고, 좀 더 밝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용을 하기 전에는 많이
 심각한 몸치였거든요. 전에는 약간 그런걸로 방송댄스 같은거, 현대무용 같
 은거 그런 걸 공연하는 것만 봐와가지고 되게 무섭고 일단 저도 춤 배우긴
 했는데 못 났어요. 그래서 겁이 많았는데 무용 수업 배우면서 다 잘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자신감을 갖
 게 된 것 같아요. (면담자 I)

나. 문화적 이해 및 접근성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 수업을 통해 무용의 다양함을 인식하고, 수업을 통해 다
 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응답했다. 무용이라는 틀에서 벗
 어나 방송댄스와 외국 민속무용에 대해 알았고, 무용이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표
 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무용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수업에 참
 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수업을 받기 전에는 무조건 그냥 막 화려한 동작만 많은 줄 알았는데
 받고나니까 좀 아름다운? 약간 우아한 동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면담자 A)
 뭔가 무용이라는 말 자체를 들었을 때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무용
 수업을 받고나서 뭔가 재미있고, 저에게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인
 식을 받았습니다. (면담자 B)

어렵고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면담자 C)

무용이 되게 딱딱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도
 보고 내가 배워보니까 좀 더 무용이 되게 넓고 다양한 것 같아요. (면담자 E)
 요즘 애들은 춤을 생각하면 뭐 방탄소년단 그런걸 하게 되지만 무용은 티니클
 링 그런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고 안 좋게만 바라볼
 순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수업을 받고 나서는
 다른 나라의 춤도 알게 되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요. (면담자 F)

제가 저런 춤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인식이 있었는데요. 받고 난 후에는 너무 어려운 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담자 G)

무용이 저런 시시한 춤을 왜 추나 생각했지만 받고나니 무용도 신기하고 흥미롭고 하면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면담자 H)

되게 딱딱한 과목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목으로 변한 것 같아요. (면담자 I)

3) 무용수업의 운영

가. 학교에서 시행되는 무용 수업의 영향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 수업을 통해 춤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 발달 등의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가 원래 가르치는걸 되게 못하고 일단은 배우는걸 잘 못하는데 무용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알겠더라구요. (면담자E)

무용수업으로 인해서 춤에 관심을 가져서 춤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무용 수업이 춤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춤추는 것도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랬어요. 춤추는거 보면 멋있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면담자F)

수업이 하나 빠졌다고 공부를 많이 못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이것도 자기의 꿈이나 창의성을 높여주는 게이지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구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G)

저에게서는 애들에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게 저한테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담자H)

무용 수업에서는 명상같은 것도 하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 시간에 평온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면담자I)

나. 무용수업의 다른 점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 수업을 자유로운 신체적 표현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무용 수업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움직임이 더해져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흥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적으로 학교는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무용 할 때마다 좀 더 몸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면담자A)

만약에 무용이랑 제일 비슷한 체육 과목으로 비교해보면 체육은 딱 몸을 쓰는 거고, 몸으로 막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용같은 경우에는 몸의 제스처나 방향, 유연성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확실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B)

직접 무용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하는 거잖아요. 전공 선생님이. 그래서 뭔가 확실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면담자C)

다른 과목은 앉아서 하는데 무용은 움직이니까 더 움직여서 그냥 좋아요. (면담자D)

다른 과목은 뭘 해야하는지 딱딱 정해져있는데 무용은 좀 더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면담자E)

무용 수업은 일단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롭고 노래에 맞춰서 하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신나고 더 좋아요. (면담자F)

다른 과목은 일단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애들도 막 소통도 많이 못하고, 체육수업 빼고는 움직이는 것도 많이 못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무용 수업을 통해 소통도 하고 이제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면담자G)

다른 과목은 틀에 박혀서 안에 있지만 무용 수업은 틀에 박혀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다른 것 같아요. (면담자H)

다른 과목은 머리로 배우는 과목이고 뭔가 주어져 있는 거를 제가 안에다가 넣는 과목이면은 무용은 머리로도 배우는데 몸으로도 배우는 거고 넣는다고 보다는 안에서 빼내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면담자I)

4) 무용교육 활성화

가. 무용수업 전용공간

현재 무용 수업은 대부분 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실에서 하거나, 다목적실에서 수업이 운영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수업 시설에 대한 질문에 무용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저희가 지금 무용을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매트 같은 것도 치워야 하고 그러니까 조금 치우는 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면담자 E)

지금 저희 다목적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춤을 어떻게 추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친구들 보면서 따라서 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 모니터에 가끔씩 비치는 모습을 보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서 거울을 사용해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싶어요. (면담자 I)

나. 무용수업에 바라는 점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수업을 더 다양하게 체험하고 모듬활동을 통한 창작무용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가 아닌 자신들만의 작품을 무대에서 선보이고 싶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좀 더 다양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면담자C)

지금처럼 이론도 하고 실기도 하는 다양하게 더 많은 장르를 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E)

조금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이니까 동작을 까먹으면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노력을 해야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3.4교시 두 시간으로 해서 바로 이어지게 한다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동작을 또 만들고 해 봐야하는데 만들기만 하고 끝이 나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면담자F)

친구들이랑 창의적으로 동작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면담자G)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수가 많이 없어서 약간 못했는데 동선같은 것도 멋지게 해가지고 퀄리티 있게요. 평소에 수행평가 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정말 무대다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한 번 만들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면담자I)

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무용수업의 효용성을 재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무용예술강사 수업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적 연구

첫째, 무용수업 가치의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무용수업 가치 1(무용인식)은 ‘보통이다’가 106명(43.3%)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73명(29.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가치 2(무용수업 중요도)는 ‘보통이다’가 97명(39.6%)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84명(34.3%)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가치 3(무용 예술강사 수업의 필요성)은 ‘그렇다’가 87명(35.5%)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83명(33.9%)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가치 4(무용교과 정규과목 편성의 필요성)은 ‘보통이다’가 117명(47.8%)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49명(20.0%)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가치 5(예술적 재능개발)은 ‘그렇다’가 116명(47.3%)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74명(30.2%)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가치 6(창의성 개발)은 ‘그렇다’가 114명(46.5%)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68명(27.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가치 7(신체표현 능력)은 ‘그렇다’가 104명(42.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67명(27.3%)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가치 8(배려심과 협동심)은 ‘그렇다’가 102명(41.6%)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78명(31.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미경(2011)의 초등무용교육의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결과와 김해성(2012)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 중등학교 무용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본 연구 결과 일부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요인에서 ‘보통이다’와 ‘그렇다’에 대한 인식으로 분포되었다. 이는 무용수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효과성으로 구성된 가치적 측면을 학생들은 수업참여에 가치를 느끼고 효과 또한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무용수업 가치 1의 무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스트리트 댄스 열풍과 K-POP 문화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이에 무용수업의 진행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진행하는데 나타난 결과라 하겠으며,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학생의 평균보다 남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무용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여학생들만 시행하는 전유물에서 탈피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무용의 다각적인 형태의 접목으로 남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한 것에 대해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둘째,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무용수업 효과 1(무용 움직임의 즐거움)은 ‘그렇다’가 128명(52.2%)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60명(24.5%)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효과 2(감정표현)은 ‘보통이다’가 93명(38.0%)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82명(33.5%)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효과 3(자세교정)은 ‘그렇다’가 106명(43.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72명(29.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

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효과 4(긴장 완화)은 ‘보통이다’가 104명(42.4%)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69명(28.2%)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효과 5(수업 후 인식 변화)는 ‘그렇다’가 101명(41.2%)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78명(31.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효과 6(수업 내용 만족도)은 ‘매우 그렇다’가 114명(46.5%)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94명(38.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수업 효과 7(예술강사 수업 방식 만족도)은 ‘매우 그렇다’가 135명(55.1%)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87명(35.5%)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학년에서 1학년(4.52)과 3학년(4.12)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김새미(2005)의 중학교 체육교사의 무용수업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낸 연구결과와 문영미(2006)의 예술중학교 무용전공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 일부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무용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요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한 인식으로 분포되었다. 이는 무용수업의 효과적 측면에 대해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고 효과 또한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무용수업 효과 7의 무용예술 강사 수업방식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학년의 1학년과 3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1학년에 비해 3학년의 예술강사 수업방식 만족도가 낮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방과 후 활동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은 학생으로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나타난 결과라 판단되고 3학년 학생이 1학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고등학교 진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셋째, 수업운영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업운영 인식 1(체육교과로서의 적합성)은 ‘그렇다’가 96명(39.2%)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74명(30.2%)

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운영 인식 2(가장 희망하는 신체활동)는 남학생(17.1%), 여학생(20.0%) 모두에서 ‘방송댄스’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또한 1학년(6.9%), 2학년(25.7%), 3학년(4.5%) 모두 ‘방송댄스’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운영 인식 3(현재 무용수업 시수)은 ‘그렇다’가 94명(38.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80명(32.7%)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운영 인식 4(희망 무용수업 시수)는 남학생(29.0%), 여학생(20.8%) 모두에서 ‘주 1시간’이 가장 희망하는 시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또한 1학년(9.4%), 2학년(35.1%), 3학년(5.3%) 모두 ‘주 1시간’을 가장 희망하는 시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운영 인식 5(현재 무용수업 이론 및 실기비중)은 ‘그렇다’가 106명(43.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77명(31.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운영 인식 6(희망 무용수업 이론 및 실기 비중)은 남학생(26.5%), 여학생(18.8%) 모두에서 ‘실기 위주의 수업운영’이 가장 희망하는 수업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또한 1학년(7.8%), 2학년(33.5%), 3학년(4.1%) 모두 ‘실기 위주의 수업운영’이 가장 희망하는 수업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운영 인식 7(무용수업 지속적 유지 필요 여부)은 ‘그렇다’가 97명(39.6%)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77명(33.1%)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박정옥(2013)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구특성에 따른 실용무용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와 이보영, 민현주(2010)의 강원도 지역 여자중학교 무용수업의 실태분석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 일부를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무용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요인에서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대한 인식으로 분포되었다. 이는 무용수업의 효율적인 시수와 비중에 대한 측면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무용수업이 체육교과목으로 ‘적합하다’와 무용수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다. 특히, 희망하는 무용프로그램으로는 방송댄스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용수업 시수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한편 무용수업의 비중으로는 실기를 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무용수업 중 방송댄스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용수업을 운영하는 지도자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학생들의 관심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수업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하겠다.

넷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1(순수 예술 보다 생활무용이 우선)은 ‘보통이다’가 130명(53.1%)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74명(31.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학년에는 1학년(3.20)과 2학년(3.6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2(통합 수업)는 ‘보통이다’가 104명(42.4%)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82명(33.5%)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3(맞춤 수업)는 ‘보통이다’가 103명(42.0%)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80명(32.7%)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4(전문교사 배치 필요성)는 ‘그렇다’가 94명(38.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92명(37.6%)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성별과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요인에서 ‘보통이다’와 ‘그렇다’에 대한 인식으로 분포되었다. 이는 무용수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무용인 순수무용보다 생활무용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무용을 지도하는 지도자 또한 무용을 전공한 전문교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2) 질적 연구

첫째, 무용을 창의적인 춤이라고 인식하고 친구들과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수업으로 무용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교과로 여겨지며 이는 김윤희(2001) 여자중학생의 무용수업 인식과 체험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수업 속의 자유로움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더 많은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학

생들의 수업 만족과 직결되고, 주요 교과목과 다른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무용수업은 다른 과목에 비해 시수가 적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친구들과 놀면서 하는 수업이라는 인식이 크다. 이러한 인식은 무용수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무용 수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무용교육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수업을 통해 춤의 다양함을 인식하고,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무용수업을 받기 전 춤을 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무용수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무용수업 중 민속무용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이지혜(2010)의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중학생의 무용교육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가 이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셋째, 무용수업을 통해 춤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 발달 등의 자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수업의 요가나 명상과 같은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김은경(2003)의 여자중학생의 무용수업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 일부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무용수업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움직임 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윤희(2001)의 여자 중학생의 무용수업 인식과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에 대한 결과가 이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은 무용실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용 수업은 대부분 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실이나 다목적실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무용수업을 위해 거울이나 발레 Bar와 같은 무용수업을 위한 기자재들을 배치하여 원활한 무용수업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방송댄스, 창작무용과 같은 다양한 무용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무용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무용예술강사의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무용교육에 있어 중학생의 생각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무용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해 논하고 중학교 무용수업을 이해하는데 실증적인 자료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수업 운영 및 실태조사, 인식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양적 연구인 설문구성의 수직적 연구와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실증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한 질적 연구의 수평적 연구를 진행하므로 연구의 차별화 및 논리성을 입증하였다.

1) 양적 연구

수직적 연구인 양적 연구에서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을 운영하는 전라남도 지역의 중학교 중에서 4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245명의 자료를 실증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22.0의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검증(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다.

첫째, 무용수업 가치의 인식에 대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그렇다’ 이상의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술적인 재능 개발, 창의성 개발, 신체표현 능력 향상 등의 기능적 측면에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수업 효과의 인식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특히, 수업진행 후 무용에 대한 인식변화, 예술강사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업운영에 대한 인식결과를 살펴보면 희망하는 신

체활동으로 ‘방송댄스’를 가장 선호했고 희망하는 무용 수업시간은 ‘주 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무용수업 방식은 ‘실기 위주의 수업운영’이라 응답하였다. 넷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보통이다’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순수무용보다 생활무용의 관심과 무용을 전공한 전문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다른 연구와는 달리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K-POP, 스트리트 댄스 등의 여파가 미치는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무용교과에서 또한 이러한 이슈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 무용수의 체계적 양성과 배치가 요구되어야겠다.

2) 질적 연구

수평적인 연구인 질적 연구에서는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개별면접을 통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하였다. 심층면담의 질문지는 선행연구의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하여 8문항으로 선별하였고 인터뷰 기법을 활용한 전사 작업(Transcribing)을 하였다. 전사 작업은 귀납적 범주분석의 하나인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중복된 단어와 문장들을 선별하여 부호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을 창의적인 춤이라고 인식하고 친구들과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수업으로 무용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교과로 여겨졌다. 무용수업은 춤과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 몸으로 표현해내는 수업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을 자기 표현의 도구로써 춤의 다양함을 인식하고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민속무용을 접하면서 무용수업의 문화적 이해와 접근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수업은 주요 교과목의 주입식과는 달리 직접 체험하고 내재된 것을 표현함으로써 무용수업의 흥미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넷째, 무용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신거울과 같은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무용수업 중 창작무용에 관심을 보이며 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학생들의 학교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시설이나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수업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결국 무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업의 개발과 꾸준한 연구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여 무용교육의 올바른 인식과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무용교육에 있어 중학생의 생각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연구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한점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범위는 전라남도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에 표본집단을 확대해 연구를 계획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예술강사 수업을 통한 중학생의 무용수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무용 교과와 방과후 무용 수업 프로그램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심도 있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변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연구 변인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 서울:교육부
- 김미경(2011). 초등무용교육의 교과 내용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민희(2012). 무용예술강사의 긍정심리와 리더십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새미(2005). 중학교 체육교사의 무용수업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세현(2010). 중등학교 예술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김소연(2016). 학교 무용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수영(2021). 학교 무용예술수업에서의 “무용 잘 가르치기” : 의미 및 무용예술강사 자질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숙정(2005). 유아무용이 정서 및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천(2006). 질적 연구 방법론 1. 서울: 문음사.
- 김윤희(2001). 여자 중학생의 무용수업 인식과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은경(2003). 여자중학생의 무용수업에 대한 인식 : 충청북도 청주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은(2012). 중학교 남학생의 무용 수업 참여에 따른 인식 및 선호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연(2006). 청소년의 댄스동아리 참여가 무용의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미

- 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수(2008). 한국 전통무용공연의 비전공자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주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 7종목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차연(2014). 예술강사 제도가 수업만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해성(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등학교 무용교육개선방안. 한국무용연구, 30(1), 59-94.
- 김화숙(1995). 교육으로서의 무용. 한국무용교육학회지, 5, 13-14.
- 류종욱(2001). 학교 무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광주·전남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종윤(2005). 중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영미(2006). 예술중학교 무용전공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다혜(2011). 초등학교 예술강사 무용수업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와 인식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유진(2018). 무용예술강사지원사업의 연구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정욱(2013). 고등학교 인구특성에 따른 대중매체와 실용무용 인식도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주선(2006). 한국무용 공연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대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찬(2019).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이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인숙(2005). 무용의 교육적 가치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

- 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소윤경(2012). 학교무용수업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무용인식도 및 학습태도 차이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주경(2015).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적 접근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지영(2008). 학교무용교육의 가치와 수업 실천에 대한 고등학교 무용교사와 학생의 인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다은(2019). 학교체육 교과과정 중 무용수업이 중학생의 무용인식도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보영, 민현주(2010). 강원도 여자중학교 무용수업의 실태 분석 및 인식도 조사. 대한 무용학회논문집, 63, 167-180.
- 이선지(2010). 예술무용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점 모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영(2009). 수원시 여고생의 무용 수업에 대한 인식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혜(2010).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중학생의 무용교육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 경기 지역 중학생 1,2학년층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희(2011). 무용인식 조사척도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현미(1998). 중학교 무용교육의 실태분석과 운영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희선(1994). 무용교육 목표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인식도. 한국무용교육학회지, 4, 23-40.
- 조영돌(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관심도 및 이미지에 관한 연

구:울산시·군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조은희(2016). 대학생의 교양무용수업 참여유무에 따른 무용인식수준 및 무용
 소비행동 차이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효주(2007). 여자중학생의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경민(2011). 무용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중학생의 인식도 및 만족
 도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정아(2000). 중·고등학교의 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
 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19년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연차보고서
 홍애령, 이소미(2018). 중등학교 학교무용교육연구의 논제 유형 고찰. 한국스포
 츠교육학회지, 25(3), 109-127.
 Brinson, peter (1991). 영국 춤 문화의 앞날을 위한 제안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ed). Newbury Park CA: sage.
 Schempp. P.(1987).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B
 eyond the limits of natural science. Jpurnal of teaching in ph
 ysical education, 6(2), 111-121

<부록 1>

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자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제시된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히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석사과정 운영빈 올림

개인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무용 수업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해당 번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무용 수업은 중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무용예술강사 수업이 필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무용교과 정규과목 편성은 필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무용 수업은 예술적 재능 개발에 영향을 준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무용 수업은 창의성 개발에 가치가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무용 수업을 통해 신체 표현능력이 좋아졌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무용 수업을 통해 동료 간 배려심과 협동심이 길러졌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무용 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입니다. 해당 번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9. 무용 수업을 통해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무용 수업을 통해 감정 표현이 좋아졌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무용 수업을 통해 자세가 좋아졌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무용 수업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무용수업을 통해 무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무용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무용수업 지도자에 대해 만족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무용 예술강사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시해 주십시오.

16. 무용 수업은 체육교과의 내용으로서 적합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무용 수업으로 가장 희망하는 신체활동은 무엇인가요?
- ① 한국무용 ② 현대무용 ③ 발레 ④ 민속무용 ⑤ 방송댄스 ⑥ 기타
18. 무용 수업의 시수에 대해 만족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희망하는 무용 수업의 시수는?

- ① 주당 1시간 ② 주당 2시간 ③ 주당 3시간 ④ 주당 4시간이상

20. 무용 수업의 이론과 실기시간의 비중에 대해 만족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희망하는 무용 수업의 비중은?

- ① 실기만 운영 ② 실기를 주로 운영 ③ 이론과 실기를 반반 운영
 ④ 이론을 주로 운영 ⑤ 이론만 운영

22. 다음에도 예술강사 선생님을 통한 무용수업을 받고 싶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무용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23. 무용수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예술보다 생활무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무용수업에서 이론, 실기, 감상 등의 통합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무용수업은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무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주제	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연구자	윤 영 빈	연락처 010
소속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본 연구자는 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당신을 관찰하고,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기를 통해 녹취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사용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개인적인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으며,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면접 내용은 학문적 연구로만 사용됩니다.

연구 참여자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특별한 질문에 대해 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불이익이나 구속 없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권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읽고 연구 목적과 내용, 과정 및 절차를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연구 참여자로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

성명 :

(인)